

에버하드 워프스 직전 국제회장

독일, 헤센주의 켈크하임 출신의 에버하드 워프스 씨가 2009년 7월 6-10일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 제 92차 국제대회에서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.

워프스 전회장은 기업가로서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체의 전 최고 경영자이며, 유럽 전역에 걸친 냉동식품 전문 마케팅 분야의 개척자입니다.

그는 특히 회원개발, 클럽확장, 지도력 연수 분야에 조예가 깊으며 노련하고 유능한 지도자로서, 봉사 및 협력 부문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.

1985년 이래 호프하임 암 타우누스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워프스 전회장은 클럽회장, 지구총재, 협의회의장, 차기 총재를 연수시키는 당선총재 세미나 그룹 리더 및 국제이사직을 역임했습니다. 그는 독일 라이온스재단(Deutsches Hilfswerk)의 최고 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, 청소년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라이온스 퀘스트를 최초로 독일에 도입했습니다. 그는 켈크하임 암 타우누스 라이온스클럽의 명예회원입니다.

국제협회에 대한 봉사로 그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상인 친선 대사상을 포함하여 무수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. 그는 프로그래시브 멜빈 존스 동지이기도 합니다.

멜빈 존스 동지인 부인 마기트 여사 사이에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. 아들 올리버와 며느리인 산드라 사이에 딸 해나캐를로타가 있고, 아들 마르크스와 며느리 폴린 사이에 아들 안톤이 있습니다.